Ⅱ. 출제의도와 문제해설(인문계)

1. 2009학년도 논술시험 출제의 기본방향

2009학년도 고려대학교 모의 논술시험은 지난해 논술시험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출제되었다. 이러한 출제유형은 2007학년도 통합논술에 비하여 통합의 정도 및 난이도를 완화시킨 2008학년도 논술의 경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며, 고려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던 출제유형은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의 논술출제본부는 이미 작년부터 논술시험에서 세 가지 측면에 특별한 비중을 두어서 출제하였다.

첫째, 고려대학교 논술시험의 목표로서 이미 공개된 바 있는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고등학교 내신성적 및 수능시험 성적에 대한 보정에 적합한 문제를 출제한다.

둘째, 수험생들의 수준 및 응시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논술시험이 변별력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운 문제와 마찬가지로 너무 쉬운 문제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평가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채점의 기준을 최대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아무리 그 자체로 좋은 문제라 하더라도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는 대입시험을 위한 문제로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2009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시험 출제에서도 다음과 같은 출제의 기본방향이 유지될 것이다.

①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이를 위하여 i)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ii) 자신의 견해를 정해진 시간 안에 제한된 분량으로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iii) 주어진 자료 속의 정보와 자신의 생각을 종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발전시키는 창의적 능력을 고르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도록 한다.

② 고교 내신 및 수능시험에 대한 보정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즉, 고교 내신이나 수능에서 정확하게 측정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특히 통합교과형 논술로서의 실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교과목에서 각기 단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서 새로운 종합적 판단으로 유도하는 방식의 문제를 출제하도록 한다.

③ 이를 위하여 출제팀 내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특히 인문학적 측면과 사회과학적 요소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출제의 소재와 방향, 제시문의 유형 등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문제를 출제하도록 한다.

2. 주제 및 제시문 해설

이번 고려대학교 모의 논술시험에서는 '학문의 진보'라는 큰 주제로 묶일 수 있는 4개의 제시문

이 활용되고 있다. 4개의 제시문은 각기 학문의 과제 및 성격에 관한 글, 학문 및 예술을 비롯한 인간의 문명에 대해 비판적인 글, 인간의 진보에 대한 강한 낙관을 담고 있는 글, 그리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상황에 관한 글로 구성되어 있다.

'학문의 진보'라는 주제는 수험생들에게도 낯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시문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견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고려대학교 논술의 목표에 따라서 수험생들의 제시문 독해능력, 표현능력 및 논리적 사고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출제자들이 수험생들의 답안에서 기대하는 것은 조금은 복잡한 제시문들을 정확하게 읽고 그 논지를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내는 것, 그리고 제시문들의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논제에서 요구하는 지침에 부합하는 내용을 주어진 분량 속에 적절하게 표현해내는 것이다. 수험생들은 각 제시문의 논지 및 그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제시문 (가)는 학문의 진보가 지닌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학문 연구는 진보의 과정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예술과 구분된다. 예술의 역사는 완성을 향한 진보의 과정이 아니며 한 예술품의 완성도는 순수하게 미학적 관점에서 파악된다. 따라서 후대의 예술품이 전대의 예술품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학문 분야에서는 어떤 연구 성과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낡아지고 다른 연구에 의해 폐기되는 운명에 처한다. 새로운 질문의 제기와 그 질문에 대한 해명은 학문의 역사를 통해 계속되며 그로써 학문은 진보한다.

그런데 그처럼 무한히 계속되는 진보의 과정에 예속되어 낡아질 운명에 처한 학문 연구의 진정한 의의는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해 학문의 실용성이나 학문의 자기 목적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그런데 학문의 진보가 인류가 겪어온 지성화 과정의 본질을 이룬다는 점은 분명하다. 지성화가 곧바로 삶의 편리와 지식의 증대를 가져오지 않는다. 지성화는 합리적 과정을 통한 지식의 획득 가능성을 신뢰한다. 지성화는 미개인에게 주술이 했던 역할을 과학과 기술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의 탈주술화를 수행한다. 따라서 학문의 진보가 지닌 진정한 의미는 지성화를 통한 세계의 탈주술화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시문 (가)는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의 글『직업으로서의 학문』에서 발췌한 부분을 출제의 의도에 맞도록 수정하고 가필하여 작성된 것이다.

제시문 (나)는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의 저서인『학문예술론』에서 인용한 글이다.

루소는 이 글에서 '학문과 예술의 부흥이 풍속의 순화에 기여하였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여,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지식과 무익하고 까다로운 예술취미가 독제 권력의 억압을 은폐하고 시민들을 미덕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고 주장하며, 그 대안으로 자연 상태에서 용감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인간의 이미지를 제시한다.

특히 인용된 제시문에서, 루소는 1) 학문은 오류를 피할 수 없으며, 2) 끈질기고 진지한 진리탐구의 노력을 이 세상에서 기대하기 어려우며, 3) 진리를 확신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4) 진리가 발견된다 해도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학문의 무용성을 주장하고, 이어서 1) 학문이 유익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사회에 비용을 치르게 한다는

점, 2) 신앙의 토대를 흔들고 전통적인 미덕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을 지적한다.

루소의 이 비판은 일차적으로 자기 시대의 무능한 지식인들을 겨냥하는 것이지만 특정한 지적 풍토에 대한 탄핵을 넘어서서 학문과 예술의 토대 자체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유도한다.

제시문 (다)는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 1898~1956)의 희곡 『갈릴레이의 생애』의 도입부에서 취한 글이다.

이 글에는 오랜 교리사적 전통에 의해 왜곡된 종교적 세계상의 허위를 폭로하고, 관찰과 실험이라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세계의 새로운, 그리고 참된 모습에 접근하려는 한 근대 과학자의 구상과 기대가 인상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를 테면 "흑사병"은 신의 저주이고, 신이 인간을 위해 창조한 지구는 세계의 중심이라고 설명하던 시대는 옛 시대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을 구속하던 이 낡은 세계를 "떨치고 나가" 안전한 "해안을 떠나 온갖 바다"로, "새 대륙"으로 항해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기도와 계시는 더 이상 진리에로의 통로가 아니다. 오히려 "모든 사물의 원인을 찾아내려는 관심"이 우리를 "조사"와 실험에로 이끌고, 이를 통해 우리는 이미 많은 진실을 "발견"했고, 또 더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신의 힘이 아니라, 인간 이성의 힘에 의해 추동되는 과학이 결국은 참된 세계에 대한 최종적인 진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성과 합리적 과학의 힘에 대한 신뢰, 이 힘이 제공할 완전한 앎에 대한 기대가 근대인들을 고무했고, 이것이 이른바 근대 과학의 탄생 배경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여러 판본을 거치며 그 외관을 달리해 온 『갈릴레이의 생애』 자체는 여러 각도에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작품이다. 예를 들어 교황청의 폭력에 항거하는 갈릴레이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면 이 글은 나치 정권의 폭압에 항거하라는 작가의 요청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교회의 위협에 결국은 굴복하는 갈릴레이의 모습에 눈길을 두면 핵무기 개발에 사역하는 비굴한 현대 과학자들에 대한 경고로 읽힐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시험에서 인용된 글은 원칙적으로 다른 제시문들과의 연관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그렇게 본다면 이 글은 이성과 과학의 힘을 통한 계몽, 즉 주술적—종교적 세계상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독해되어야 한다. 실로 근대를 지배한 계몽의 본질은 칸트도 밝혔듯이 이성의 자율적 사용을 통한, 선입견과 미신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성을 통한 계몽, 그리고 이를 통한 인류와 학문의 진보 — 바로 이것이 제시문 (다)의 요지이다.

제시문 (라)는 수학적 논리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시문이다. 자연 현상 뿐 아니라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데에도 수학적 사고방식은 매우 유용하다. 제시문 (라)는 이를 잘 보여주는 예로서, 개인들의 '학습'에 따른 사회 전체의 변화를 분석하는 간단한 '모형'을 제시한다.

개인들은 그들이 가진 특성에 따라 여러 '유형'(제시문에서는 '혁신가'와 '모방자'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들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유형을 유지 혹은 변경하는 현상을 '학습'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회 전체에서 특정 유형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변동할 수 있다. 제시문 (라)는 개인들의 사회생활을 자신과 같은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나 다른 유형을 가진 사람들과 짝지어지는 것으로 모형화하고, 이것을 확률 개념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또 제시문은 '학습'의 과정을 개인들이 짝짓기 상대의 유형으로부터 얻을 보수의 기댓값에 근거하여 자신의 유형을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개인들이 자신의 유형을 변경 혹은 유지함에 따라 사회 전체에서 개인 유형의 비율도 변화 혹은 유지될 것이다.

3. 논제 해설

2009학년도 고려대학교 모의 논술시험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고등학생들의 학력수준에 비추어 무리가 없는 주제 및 제시문을 선택하는데 유의하였으며, 통합교과적 논술의 성격에 맞도록 인문학적 접근과 사회과학적 측면 및 이를 활용하는 수학적 논리가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주제와 제시문들을 선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하나의 주제에 관하여 사회과학적 제시문과 문학적 제시문, 그리고 이를 수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시문들을 사용하고 있는 점은 과거의 논술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

논제 Ⅰ에서는 제시문 (가)에 대한 요약을 요구하고 있다. 제시문 (가)는 다른 제시문들에 비하여 길이가 더 길 뿐만 아니라 내용도 더 복잡한 편이다. 특히 막스 베버의 글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는 가운데 서서히 자신의 입장으로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화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시문 (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요약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예시 및 논증과정을 침착하게 분석하여 저자가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논제 Ⅱ에서는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견해를 비교하고, 제시문들을 참고하여 학문의 진보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앞의 제시문 해설에서 밝힌 것처럼 학문과 예술로 대표되는 문명사회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자연상태로 돌아가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시문 (나)의 견해는 학문의 진보에 대한 회의적 입장임이 분명하다. 반면에 제시문 (다)는 이성과 과학의 힘을 통한 계몽, 즉 주술적·종교적 세계상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합리적 이성을 통한 인류와 학문의 진보에 대한 강한 확신을 표현함으로써 제시문 (나)와는 대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두 제시문의 비교를 전제로 학문의 진보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함에 있어서는 “제시문들을 참고”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즉, 주어진 4개의 제시문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있게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한 제시문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거나, 특정 제시문의 입장을 취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등의 설득력 있는 논리전개가 필요할 것이다.

논제 Ⅲ은 수험생들의 논리적 사고 능력, 특히 기초적인 수학적 논리를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논제 III은 크게 두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질문은 사회 구성(즉, 사회 전체에서 혁신가와 모방자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일반적 조건’을 구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 구성이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개인이 자신의 유형을 유지해야 하고 이 조건이 모든 유형에 적용되어야 함을 이해해야 한다. 각 개인이 자신의 유형을 유지해야 할 조건은 제시문에서 주어진 조건, 즉 각 유형의 개인들이 자신의 유형을 바꿀 조건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제시문에서 주어진 특정한 확률(p와 s)을 사용하여 첫 번째 질문에서 구한 일반적 조건에 해당하는 p와 s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각 유형의 개인(예를 들어,

혁신가)이 자신과 동일한 유형의 개인(혁신가)과 만날 확률과 다른 유형의 개인(모방자)과 만날 확률을 각각 구해야 하고, 각각의 경우에 얻을 보수를 이용하여 그 유형의 개인(혁신가)이 사회 생활에서 얻을 보수의 기댓값을 구해야 한다. 혁신가와 모방자 각각에 대해 이렇게 구한 보수의 기댓값을 첫 번째 질문에서 구한 일반적 조건에 대입하여 p와 s의 관계를 구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일 s가 더 크다면 p는 어떻게 변할까 같은 이 관계의 특성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4. 평가기준

수험생들의 독해능력과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논술시험에서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대학교에서는 통합적 측면을 위하여 제시문들을 함께 묶어서 제시하되, 논제를 개별화하여 구체적인 항목마다 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있다.

논술의 성격상 특정한 정답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논술문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답이 없다고 해서 오답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특히 유의할 경우에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요구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신 없는 부분이라고 빼놓고 답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답안 전체의 평가가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다.

둘째, 논제에서 요구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고, 그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주어야 한다. 논제에서 요약을 요구하는 경우와 비교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설명이나 논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각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고, 논리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상투적인 견해나 예를 드는 것보다는 주어진 제시문 및 논제의 이해에 기초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제시문을 참고하되, 제시문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다시피 해서는 안 된다. 제시문의 내용이 갖는 의미를 이해한 후 이를 자신의 표현으로 정리하여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분량 등 글의 형식적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Ⅲ. 논제별 예시답안과 평가(인문계)

1. 논제 Ⅰ의 답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

가. 논제 Ⅰ의 성격과 채점의 주안점

논제 Ⅰ은 제시문에 대한 독해 능력과 독해한 바를 요약하여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능력의 평가를 통하여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하는데 충분한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시문 (가)는 학문의 진보가 지닌 의미는 지성화를 통한 세계의 탈 주술화에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글이다. 제시문 (가)를 500자 내외로 요약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시문 (가)의 논지를 핵심단어들을 잘 활용하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 즉, 자신이 이해한 바에 따라서 요약정리하는 방식으로 – 표현하여야 한다. 제시문 (가)의 핵심단어로는 학문의 진보, 실용성, 자기 목적성, 지성화, 탈주술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 (가)는 예컨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 요약을 하더라도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들어가고, 문장의 구성이 무난할 경우에는 물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학문 연구는 진보의 과정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예술과 구분된다. 예술의 역사는 완성을 향한 진보의 과정이 아니며 한 예술품의 완성도는 순수하게 미학적 관점에서 파악된다. 학문 분야에서는 어떤 연구 성과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낡아지고 다른 연구에 의해 폐기되는 운명에 처한다. 새로운 질문의 제기와 그 질문에 대한 해명을 통해 학문은 진보한다. 그처럼 무한히 계속되는 진보의 과정에 예속되어 낡아질 운명에 처한 학문 연구의 진정한 의의는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해 학문의 실용성이나 학문의 자기 목적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그런데 학문의 진보가 인류가 겪어온 지성화 과정의 본질을 이룬다는 점은 분명하다. 지성화가 곧바로 삶의 편리와 지식의 증대를 가져오지 않는다. 지성화는 합리적 과정을 통한 지식의 획득 가능성을 신뢰한다. 지성화는 미개인에게 주술이 했던 역할을 과학과 기술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의 탈주술화를 수행한다. 따라서 학문의 진보가 지닌 진정한 의미는 지성화를 통한 세계의 탈주술화에 있다고 하겠다.

논제 Ⅰ의 평가에 있어서는 내용의 요약과 글의 구성, 글의 형식(맞춤법, 띄어쓰기, 원고지 사용법 등)이 평가대상이며, 제시문의 논거와 논리적 흐름을 잘 요약하고 있는 답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 우수답안의 사례와 평가

[우수답안의 사례1]

> 학문이 예술과 다른 가장 큰 이유는 학문은 끊임없이 진보한다는 것이다. 예술은 한 번 완성이 되면 낡지 않으며 후대의 예술에 의해 추월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문은

'완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형과 추월이 가능하고 언제나 비판과 질문의 여지가 존재한다. 학문을 하는 자는 자신의 업적 또한 추월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학자들은 왜 이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학문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일까? 어떠한 학자들은 그 이유가 실행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답은 실용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른 학자들은 학문 그 자체를 위해서라고 말한다. 이 역시 의미부여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학문의 진보에 대한 지성적 합리화는 일상적인 지식의 증대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예로 전차의 원리나 돈의 속성에 대해 일반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그러나 학문의 진보는 원할 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또한 '세계의 탈 주술화'를 가져다주었다.

[평가]

이 답안은 제시문 (가)의 내용을 무난하게 정리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요약이 요구하는 바는 제시문의 논지를 압축적인 언어로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 답안은 적절한 구성과 언어를 통해 제시문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

① 내용의 요약

이 답안은 제시문 (가)의 논지를 충실하게 정리하고 있다. 제시문의 내용과 논리를 존중하는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제시문을 효과적으로 압축할 수 있는 문장과 어구를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차의 원리나 돈의 속성과 관련한 제시문의 예를 그대로 요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그러한 예가 함의된 일반적인 수준의 어구나 문장을 썼더라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② 글의 구성

이 답안은 의미의 비중에 따라 적절하게 문단을 나누고 분량을 배분하였다. 제시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답안은 그것을 두 개의 단락으로 정리하였는데 의미의 면에서 적절한 조정이었다. 첫 단락에서는 학문과 예술을 비교하고 학문의 역사가 진보의 과정을 밟는 이유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학문의 진보에 내포된 의미가 세계의 탈 주술화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구성과 내용 전개는 제시문 (가)의 논지를 선명하게 전달하는데 적합하며 요약이 요구하는 바의 요건들을 충분히 충족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③ 글의 형식

이 답안은 맞춤법과 띄어쓰기, 원고지 사용법 등에서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첫 문단의 셋째 문장인 "그러나 학문은 '완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문이다. '학문은'을 '학문에는'으로 고쳐야 한다.

[우수답안의 사례2]

진보라는 면에 있어서 학문은 예술과 크게 다르다. 완성된 예술품은 세월이 지나도

그 가치가 능가되지 않는 반면에, 학문의 완성은 새로운 질문을 낳고, 이 질문을 통해 새로운 학문이 나타나 기존의 학문을 능가하게 된다. 즉 학문은 끊임없이 능가되고 진보할 운명에 놓여 있으며, 이는 학문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학자가 자신의 학문이 금방 낡아버리고 능가될 것을 알면서도 끝나지 않을 학문의 진보를 추구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학자들은 학문이 실용적 목적에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진보를 통한 지성화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학문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는 문명의 이기들의 작동 원리를 모른다. 즉 지성화는 생활 지식의 증대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성화는 우리에게 지식의 확대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우리는 더 이상 주술에 의지하지 않고 세계를 기술적인 수단으로 통제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탈주술화가 바로 학문을 통한 지성화가 그 자체로 의미하는 바이다.

[평가]

이 답안은 제시문 (가)의 논지를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들을 통해 재구성하고 있다. 또한 글의 형식면에서도 비교적 실수가 적은 편이어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① 내용의 요약

이 답안에서 평가할 점은 제시문의 논지를 효과적으로 축약하여 다시 쓰고 있다는 점이다. 이 답안의 작성자는 제시문을 충분히 숙지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수의 문장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답안은 요약 문항이 요구하는 바를 제대로 수행한다.

② 글의 구성

이 답안은 크게 세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단락에서는 학문과 예술을 차이에 대해, 둘째 단락에서는 학자들이 학문 연구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 셋째 단락에서는 지성화를 통한 세계의 탈주술화에 대해 각각 서술하였다. 이처럼 이 답안은 의미의 비중에 따라 단락별로 적절하게 내용을 안배한다. 다만 둘째 단락에서 학문 연구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단언한 것은 제시문의 내용과 어긋난다. 제시문에서는 학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실용성과 자기목적성을 언급할 뿐 그 중에서 자기목적성을 뚜렷하게 선택하지 않고 있다. 제시문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 반해 이 답안은 학문 연구가 그 자체로서 의미 있다고 확언함으로써 제시문에 대해 객관적 입장을 취해야 하는 요약 본연의 요구를 위반하였다. 이 부분에서 신중을 기했더라면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셋째 단락의 요약은 이 답안 중에서 가장 잘 된 부분이다. 다소 난해한 제시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적은 수의 문장으로 구현하고 있다.

③ 글의 형식

이 답안은 맞춤법과 띄어쓰기, 원고지 사용법 등에서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장을 길게 쓰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의미의 선명함은 문장의 간결함과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도록 해야 한다.

다. 부족답안의 사례와 평가

[부족 답안의 사례]

학문 연구의 목적은 지식의 획득에 있다. 이전의 인류가 얻은 기술적 성과, 또는 지식의 성립은 새로운 지식 체계의 바탕이 된다. 즉 학문은 진보, 이상적인 지성의 완성을 지향한다. 반면에 예술의 영역에는 진보가 없다. 예술에는 절대적 평가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작품이 다른 완성품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학문에서의 진보는 기존의 지식이 향유되고 다양한 시각의 해설이 덧붙여짐으로써 계속된다.

그렇다면, 학문은 절대적 완성이 불가능한 중도적 수단으로서 기능할 뿐이다. 그러나, 실용성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볼 때 지성은 사물의 원리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사회의 예측불가능성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과거의 기술은 신기술로 대체된다는 점에서 이는 여전히 한계성을 지닌다.

사람들은 사물의 물질적 가치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원리를 규명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 지식을 신뢰하며 이를 통해 지식의 획득 가능성을 증진할 뿐이다. 따라서 지성화는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무력화한다. 지식의 가치도 이를 통해 과학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평가]

이 답안은 제시문(가)에 대한 요약문으로서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제시문의 핵심 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 표현되어서 논지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제시문에 대한 독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답안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① 내용의 요약

이 답안은 제시문(가)의 내용을 부실하게 요약할 뿐 아니라 왜곡하기도 한다. 첫 문단에서 학문 연구의 목적을 거론하고 “학문의 진보가 기존의 지식이 향유되고 다양한 시각의 해설이 덧붙여짐으로써 계속된다”고 한 것은 제시문의 원래 내용에서 벗어난 요약이다. 답안의 둘째 문단에서는 학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실용성과 자기목적성을 검토하는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해야 하는데 전혀 동떨어진 내용을 서술한다. 셋째 문단에서는 제시문(가)의 논지를 선명하게 부각시키지 못한 채 모호한 서술을 하고 있다. 제시문의 핵심 어휘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도 이 답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② 글의 구성

제시문(가)의 내용 전개를 존중하여 답안을 세 개의 문단으로 구성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①에서 지적한 대로 답안의 문단마다 제시문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문단들 사이에서 논리와 문맥이 제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③ 글의 형식

이 답안에서 문장 쓰기와 관련하여 접속사와 지시대명사의 사용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접속

사는 글의 논리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게 써야 하며 불필요한 남용은 삼가야 한다. 그런데 답안의 둘째 문단에서는 문맥에 비추어 적절성이 떨어지는 접속사를 문장마다 문두에 쓰고 있어 재고를 요한다. 대명사 '이'도 이 답안에서는 정확하게 사용되지 않았다. 그 대명사가 앞 문장의 무엇을 지시하는지 불분명하다. 낱낱의 문장들이 문법 면에서는 큰 하자가 없지만 모호한 내용을 진술한다. 문법과 내용 면에서 지금보다 정확한 문장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논제Ⅱ의 답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

가. 논제Ⅱ의 성격과 채점의 주안점

논제Ⅱ에서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견해를 비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을 참고하여 학문의 진보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출제자의 요구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요 채점 기준으로 삼았다.

①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견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비교하고 있는가?

② 다른 제시문들을 골고루 참고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가?

③ 맞춤법, 띄어쓰기, 원고지 사용법 등 글의 형식적 요소를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가?

나. 우수답안의 사례와 평가

[우수답안의 사례 1]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는 학문의 진보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학문의 연구가 사회를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끌기보다는 학문 연구의 결과물들이 사회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학문의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위험과 오류를 감수해야 하며 여러 다른 의견들 가운데 참된 진리를 선별할 수 있는 선명한 척도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진리를 찾아내더라도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비해 제시문 (다)에서는 학문의 진보적 발견이 인류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문이 진보하여 지동설이 발견되자 이천 년 동안 천동설을 굳게 믿고 있었던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제시문에서는 학문의 진보에의 욕구가 신항로 개척을 계기로 확산되었으며 그 이후 여러 과학적 발전은 결과적으로 인류가 더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여했다.

인류는 돌을 깨서 도구로 이용하던 구석기 시대부터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학문의 진보를 거듭해 왔다. 그 중에는 학문적 업적을 이루는 대신 치러야 했던 위험, 오류도 있었으며 소크라테스, 갈릴레이 등과 같이 당시의 지식의 역량과 맞지 않아 희생된 지식인들도 있었다. 학문적 진보에 기여한 모든 이들이 생전에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며 때로는 견해사이에 충돌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은 더 나은 학문의 진리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었다. 학문의 발전을 한 발짝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일상생활의 유익함이나 일상적 지식의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때로는 그 시대의 여론의 적응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새로운 지식이 완전히 삶에 적용되기까지 과도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결과적으로 인류는 학문이 진보함과 동시에 좀 더 질 높은 수준의 삶과 이른바 문명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본다. 또한 높은 곳에 오르면 그보다 더 높은 곳이 보이게 되는 법이므로 후세들의 새로운 학문적 발견에 대한 욕구는 인류의 문명을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매우 가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

[평가]

이 답안은 논제의 여러 요구 사항들에 대하여 충실하게 답하고 있으며, 제시문 (나)와 (다)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비교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데에 독창적인 예를 구체적으로 인용하면서 군더더기 없는 글을 전개한 점도 돋보인다.

① 제시문 간의 비교

학문 연구에 부정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제시문 (나)의 요지와 긍정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제시문 (다)의 견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또한 글의 서두에 두 제시문의 관점을 간단명료하게 비교 제시한 방법, 즉 두괄식 구성을 선택한 점도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② 자신의 입장 논술

제시문들은 학문 연구의 필요성과 학문의 진보에 관한 관점을 담은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 답안은 학문 연구의 과정에서 학문의 연구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음을 예로 들면서도 그들의 끊임없는 연구 자세가 결국은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했음을 담담하고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③ 글의 형식

전체적으로 맞춤법, 띄어쓰기, 원고지 사용법 등의 형식적 요소를 충실하게 지킴으로써 형식적 측면에서의 오류가 거의 없는 깔끔한 글이다.

[우수답안의 사례 2]

제시문 (나)와 (다)는 학문 연구의 가치에 대한 상반된 견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먼저 제시문 (나)는 학문 연구에 시간이라는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학문 연구에 따른 학문적 진보가 기존의 가치관을 파괴하는 과정을 내포하는 것임을 인식한다면 학문 탐구의 결과 초래될 사회적 혼란 또한 클 것임을 지적한다. 이에 반해 제시문 (다)는 학문탐구와 학문적 진보에 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학문 연구의 결과는 인간의 삶의 세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실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류는 사회적 측면에서는 부조리한 관습의 철폐를 단행하였고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는 보다 실용적인 도구를 개발해 냈다.

학문의 진보는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먼저 실용성의 측면에서 학문적 진보는 기술의 진보를 가져온다. 학문이 현실문제를 다루는 지성의 작용임을 인식한다면, 학문의 진보가 인간이 현실세계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기술의 진보를 야기했음을 추론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또한 학문의 진보는 인간의 합리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세계를 객관화시키고 인간을 각종 주술적 요소로부터 해방시켰다. 미신을 비롯한 각종 '정령적인 것' 들로부터의 해방은 인간의 지위를 신비로운 세계에 종속된 수동적 존재자에서, 보다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세계에서 자주적으로 살아가는 능동적 존재자로 변화시켰다. 혼란이라는 비용을 지불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현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로 야기되는 편익이 시간이라는 비용보다 큼을 인지한다면 학문의 진보는 필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혼란 또한 과도기적인 것으로 학문 진보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일 뿐이다.

학문은 진보하며, 진보는 학문의 목적임과 동시에 운명이다. 때문에 학문적 진보에 대한 부정은 인간의 지성화 과정에 대한 부정이며 더 나아가 사유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자체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류는 그들의 존재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학문을 지속해야 하며 이것이 곧 학문적 진보를 긍정하는 또 다른 이유이게 된다.

[평가]

이 답안 역시 논제의 여러 요구 사항들에 대하여 충실하게 답하고 있으며, 제시문 (나)와 (다)의 견해를 비교하는 부분과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는 부분 사이의 분량 배분도 적절하게 되어 있다. 또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는 데 있어서도 실용적 목적과 인간의 합리성을 탈 주술화와 연계하여 서술하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① 제시문 간의 비교

학문 연구에 따르는 비용과 학문 연구의 결과가 초래하는 기존 가치관의 파괴, 사회적 혼란 등을 지적한 것은 제시문 (나)의 내용을 적절하게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제시문 (다)에 대해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학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과 부조리한 관습의 철폐와 과학 기술의 개발 등으로 정리한 것도 적절하게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자신의 입장 논술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들을 골고루 참고하여, 학문의 진보는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학생 자신의 입장을 조리 있게 서술하였다. 또한 실용적 측면에서 현실적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인간성의 측면에서 합리성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인간 존중의 차원으로까지 학문 연구의 성과를 확장하고 있는 점도 돋보인다. 그리고 학문 연구의 폐단으로 지적된 제시문 (나)의 견해를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서술해 나가려고 한 점도 좋은 점수를 받는 요소가 되었다.

③ 글의 형식

전체적으로 맞춤법, 띄어쓰기, 원고지 사용법 등의 형식적 요소를 충실하게 지키고 있으나, 같은 의

미의 용어를 한 문장에 중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과 부분적으로 어색한 구절을 사용하거나 문장의 의미가 완전하지 않게 서술한 부분이 눈에 거슬린다.

다. 부족답안의 사례와 평가

[부족답안의 사례]

제시문(나)는 학문 연구는 위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연구과정에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며 진리를 찾아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진리를 찾아도 검증의 기준이 모호해 그것이 진정한 진리인지 알기 힘들다. 게다가 학문 연구의 결과도 위험하다. 학문의 무위도식하는 특성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 따라서 학문은 쓸모없으며 그것이 없다면 사회는 건전해지고 평화로워진다.

제시문(다)는 옛날에는 인간이 자신들의 세상이 갇혀있다고 믿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을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 세상을 탐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세상에 대한 관심, 탐구로 어떠한 것이 발견되고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또한 왜 그런가를 알게 되었다. 이는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이것이 학문이 진보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나)는 학문이 위험하며, 없어져야한다 하지만 (다)는 학문의 진보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탐구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의 진보는 이롭다.

학문의 진보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이 세상은 학문 및 지식의 발전으로 발전해왔다. 예로 전근대사회에서 오늘날의 사회로 발전하기까지 과학기술이나 정치적, 경제적인 학문적 지식이 바탕 되었음을 들 수 있다. 이처럼 학문의 진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무턱대고 학문적 진보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떠한 학문이 사회에 꼭 필요하며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아야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학문의 진보가 필요한 사회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 또한 마련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연구소나 그와 관련된 기관이 있고 이에 대한 재정적, 정치적, 제도적인 기반이 있어야 제대로된 학문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학문이 필요로 하는 사회의 상태, 수준, 구성원들의 사고능력 등이 갖춰져야 그것이 제대로 작용한다. 구석기시대에 나노 기술이 생겨나면 아무 쓸모도 없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학문은 인간의 세계에 대한 탐구심과 호기심의 산물이며, 지적욕구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학문은 사람들의 세계관을 넓혀주어 인간의 의식수준을 제고시켜왔다. 무엇보다 학문의 발전은 세상의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학문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따라서 앞으로의 세상의 발전을 위해 학문의 발전이 필수적인데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 고려되어야한다.

[평가]

이 답안은 전반적으로 글의 흐름이 논리적이지 않으며, 논제의 요구 사항들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하고 있다. 비록 전체적인 분량의 배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적절하게 배분하였으나, 문단 내에서의 논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고, 문단과 문단의 논리적인 흐름이 중복되거나 단절되는 부분도 있다. 끝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범박하게 서술한 점도 감점 요인이다.

① 제시문 간의 비교

위 글에서 제시문 간의 비교에 관한 부분은 앞 세 문단이다. 이 중 첫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서 각각 제시문 (나)와 (다)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으나 자세히 읽어보면 두 문단 모두 제시문에 서술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요약하지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세 번째 문단에서 (나)와 (다)의 핵심 요지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이 부분 역시 학문의 연구와 학문의 진보라는 서로 다른 층위로 이해하고 있음도 감점 요인이다.

② 자신의 입장 논술

위 글에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는 부분은 아래 두 문단이다. 이 두 문단 가운데 첫 문단에서는 자신의 입장이 학문 연구를 찬성하는 위치에 있는지 반대하는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게 서술되어 있다. 또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는 첫 문단 6-7번째 문장의 종결 형태는 다른 글을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서술은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는 글쓰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서술된 문장 대부분에서 논리성의 결여를 발견할 수 있으며, 문장 간의 연결도 매끄럽지 못하다. 끝으로 제시문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라고 한 논제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있다.

③ 글의 형식

맞춤법, 띄어쓰기, 원고지 사용법 등의 형식적 요소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문장이 어색하게 서술된 부분도 자주 보인다. 지시어인 대명사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 분명치 않은 경우도 여러 군데 발견되며, 끝으로 주어와 술어가 일치 하지 않는 비문과 띄어쓰기의 오류가 지나치게 많은 점도 눈에 거슬린다.

3. 논제 III의 답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

가. 논술출제 본부에서 제시하는 모범답안

먼저 모의 논술고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작성한 모범 답안을 보기 전에 논술출제 본부에서 작성한 논제 III의 모법 답안을 보자.

> 사회 구성이 일정하게 유지된다함은 그 사회에서 혁신가와 모방자의 비율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제시문에서 '혁신가의 보수의 기댓값이 모방자의 보수의 기댓값보다 작을 경우' 또는 '모방자의 보수의 기댓값이 혁신가의 보수의 기댓값보다 작을 경우' 사회 구성이 변화함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란 혁신가의 보수의 기댓값과 모방자의 보수의 기댓값이 동일한 경우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혁신가의 보수의 기댓값이 모방자의 보수의 기댓값보다 작지 않고' 또한 '모방자의 보수의 기댓값이 혁신가의 보수의 기댓값보다 작을 않아야' 한다. 이는 '혁신가의 보수의 기댓값이 모방자의 보수의 기댓값과 같거나 그보다 크다'라는 조건과 '모방자의 보수의 기댓값이 혁신가의 보수의 기댓값과 같거나 그보다 크다'라는 조건의 교집합이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교집합을 명제로 표현하면 '혁신가의 보수의 기댓값과 모방자의 보수의 기댓값이 동일하다'이다.

사회구성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p와 s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혁신가의 보수의 기댓값은 항상 1이다. 모방자의 보수의 기댓값은 제시문에서 주어진 정보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먼저, 모방자가 다른 모방자를 만날 확률은 $s+(1-s)(1-p)$ 이며 이 경우 모방자의 보수는 0이다. 모방자가 혁신가를 만날 확률은 $(1-s)p$ 이며 이 경우 모방자의 보수는 2 이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조합하여 모방자의 보수의 기댓값은 $2(1-s)p$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이 안정적이기 위한 p와 s의 관계는 $2(1-s)p=1$, 또는 $p=1/(2(1-s))$ 이다.

p 와 s는 확률이며 따라서 그 값이 0과 1사이(양극 포함)여야 한다. 조건 $p=1/(2(1-s))$로부터 p가 0과 1사이(양극 포함)라는 것은 $1/(2(1-s))$이 0과 1사이임을 의미한다. 이를 s에 대해서 풀어보면 s는 1/2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조건 2(1-s)p=1을 s에 대해서 풀면 $s=(2p-1)/2p$가 된다. s 또한 확률이므로 0과 1 사이의 값을 취하고 따라서 $(2p-1)/2p$또한 0과 1 사이어야 한다. 이는 p가 1/2보다 같거나 클 때 충족된다.

위에서 구한 식은 $0 \leq s \leq 1/2$이고 그에 따라 $1/2 \leq p \leq 1$인 경우에 성립한다. s가 1/2보다 클 경우, 즉 확실하게 동일한 유형들 끼리 상호작용을 할 확률이 1/2이상일 경우, 모방자의 보수의 기댓값은 혁신가의 보수의 기댓값보다 항상 작으며, 따라서 사회에서 혁신가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 사회는 혁신가로만 구성될 것이다. 사회가 처음 구성될 때 어떤 한 유형의 개인들만 존재하면 그 구성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즉 $p=0$일 때는 모방자만 존재할 때이고 $p=1$일 때는 혁신가만 존재할 것이다. 이 때 다른 유형의 개인들과 짝지어질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학습'도 없고 따라서 초기의 사회 구성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수학적 표현)

π_A = 혁신가의 보수기댓값

π_B = 모방자의 보수기댓값

Ⅰ. 혁신가가 모방자로 바뀌지 않을 조건: $\pi_A \geq \pi_B$

모방자가 혁신가로 바뀌지 않을 조건: $\pi_A \leq \pi_B$

사회구성이 바뀌지 않을 조건 = 위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 $\pi_A = \pi_B$ ...(1)

Ⅱ-1. 혁신가가 혁신가를 만날 확률: $p_{AA} = s + (1-s)p$

혁신가가 모방자를 만날 확률: $p_{AB} = (1-s)(1-p)$

모방자가 혁신가를 만날 확률: $p_{BA} = (1-s)p$

모방자가 혁신가를 만날 확률: $p_{BB} = s + (1-s)(1-p)$

$\pi_A = 1 \cdot p_{AA} + 1 \cdot p_{AB} = 1$

$\pi_B = 2 \cdot p_{BA} + 0 \cdot p_{BB} = 2(1-s)p$

(1)에 대입하면 $1 = 2(1-s)p$ ...(2)

Ⅱ-2.

(i) s와 p가 확률이므로 $0 \leq s \leq 1$ 이고 $0 \leq p \leq 1$. (2)식에 대입하면, $0 \leq s \leq 1/2$이고 $1/2 \leq p \leq 1$. (즉 p = 0 의 경우가 없음. s = 1/2일 때 p = 1이 됨).

(ii) $dp/ds > 0$: 혁신가건 모방자건 동일한 유형과 만날 확률이 커지면 균형에서 혁신가의 비율이 상승

(iii) $1/2 < s \leq 1$일 경우, $0 \leq p \leq 1$이므로 항상 $\pi_A > \pi_B$.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모방자가 모두 혁신가로 변화하여 결국에 사회는 혁신가로만 구성된다.

(iv) 사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a) p = 0 인 경우: 사회 전체가 모방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다른 유형과 만나지도 않아 유형이 바뀔 수 없고 이 구성이 그대로 유지됨

(b) p = 1 인 경우: 사회 전체가 혁신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다른 유형과 만나지도 않아 유형이 바뀔 수 없고 이 구성이 그대로 유지됨

나. 우수답안의 사례와 평가

[우수답안의 사례 1]

제시문(라)에 따르면 사회구성은 혁신가와 모방자의 비율을 뜻한다. 그리고 그 비율은 혁신가와 모방자의 보수의 기댓값에 의해 결정된다. 혁신가 보수의 기댓값이 모방자의 것보다 큰 경우 몇 명의 모방자가 혁신가가 되고, 그 반대의 경우 몇 명의 혁신가가 모방자가 되어 균형을 맞춘다. 따라서 사회구성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혁신가 보수의 기댓값과 모방자의 보수 기댓값이 같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때, 혁신가 보수의 기댓값은 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방자의 보수의 기댓값이 1로 일정하게 될 조건을 고려해 주면 된다.

먼저 모방자가 다른 사회 구성원과 관계를 맺을때 상대의 유형이 혁신가일 때와 모방자일 때의 확률을 따져줘야 한다.(0 < p <1, 0 ≤ s < 1)

ⅰ) 모방자 - 혁신자

(1 - s) ×p,

ⅱ) 모방자 - 모방자

(1 - s)(1 - p) + s

이 자료를 토대로 모방자 보수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0 < p < 1, 0 < s < 1)

보수	0	2	계
확률	s + (1-s)(1-p)	(1-s)p	1

기댓값 = 0X{s+(1-s)(1-p)}+2(P(1-s)} = 2p(1-s)

이 때 기댓값이 1이어야 하므로

∴ 2p(1-s) = 1 (0<p<1, 0≤s<1)

그리고 p=1 일 경우나 p=0일 경우는 사회 전체가 혁신가나 모방자로만 이루어진 것이므로 변동의 여지가 없다.

또한 s = 1일 경우에는 모방자는 무조건 모방자만, 혁신가는 무조건 혁신가와 짝짓

게 되므로 모방자 보수가 0, 혁신가의 보수는 1이 되므로 무조건 변동하게 된다.

∴ $2p(1-s) = 1$ $(0<p<1,\ 0\leq s<1)$

그리고 p=0 or p=1 일 때 사회구조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평가]

이 답안은 먼저 "사회구성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혁신가의 보수의 기댓값과 모방자의 보수의 기댓값이 같아야 함"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또한 두 유형의 기댓값을 정확한 수식으로 표현하였고 그로부터 $2p(1-s) = 1$라고 하는 조건은 정확하게 계산하였다. 특히 p=0 또는 p=1 인 특수한 경우까지 고려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답안의 사례 2]

사회구성원이 동일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혁신가의 보수 + 비용이 모방자의 보수와 일치해야한다. 비용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혁신가의 보수와 모방자의 보수가 일치되는 지점을 찾는다면 혁신가는 모든 가능성에서 1의 보수를 얻으므로 1의 보수를 얻게된다. 계산한다면 $1\cdot s + 1\cdot(1-s)(p+1-p) = 1$로도 혁신가는 1의 보수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모방자는 $0\cdot s + (1-s)(1-p)\cdot 0+(1-s)p\cdot 2$ 로써 $2p(1-s)$의 값을 보수로 얻게 된다. 즉 혁신가의 연구비용에 대해 정의가 되어있지 않은 제시문 (라)에서 사회구성원이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1=2p(1-s)$의 값을 가져야 한다. 2p와 1-s가 서로 역수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이는 전체사회에서 혁신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유형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선택된 상대와 짝지어질 확률이 낮아져야 사회구성원의 배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평가]

이 답안 역시 두 유형의 보수의 기댓값이 같아야 함과 그를 위한 조건을 $1=2p(1-s)$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회구성'을 '사회구성원'이라고 잘 못 표현하였고 또한 모범답안에서 고려하고 있는 특수한 경우들과 p와 s의 범위의 제한 등에 대한 고려가 없음으로 해서 사례 1 만큼의 높은 점수를 획득하지는 못하였다.

다. 부족답안의 사례와 평가

[부족 답안 사례 1]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방자로만 사회가 이루어질 경우 모두 아무런 보수를 얻지 못한다. 따라서 혁신가의 보수 1을 얻기 위해 혁신가로 변하려는 모방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반대로 사회가 혁신가로만 이루어졌다면 혁신가 일 때의 보수 1보다 모방자로 변했을 때의 보수 2가 크기 때문에 모방자로 변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리고 혁신가와 모방자가 만날 수 없

는 사회는 모방자가 보수를 얻기 위해 혁신가로 변하려고 할 것이다.

제시문에서 사회구성을 일정하게 유지할 특정한 경우는 혁신가의 보수의 기댓값과 모방자의 보수의 기댓값이 일치 할 때이다. 혁신가의 보수의 기댓값은 항상 1이고 모방자의 보수의 기댓값은 $2\times(1-s)\times(1-p)\times p$ 이다. 이때 $s=p^2+(1-p)^2=2p^2-2p+1$ 이므로 $1-s=1-(2p^2-2p+1)=2p-2p^2$ 이다 따라서 모방자의 보수의 기댓값은 $2\times(2p-2p^2)\times(1-p)\times p=(2p-2p^2)^2$이다. $(2p-2p^2)^2=1$이어야 하므로 $2p-2p^2=1$ or $2p-2p^2=-1$ 이다.

$2p-2p^2=1$ 을 만족하는 실수 p가 없으므로 $2p-2p^2=-1$인 p를 구해야 한

$2p^2-2p+1=0$

$2\left(p-\frac{1}{2}\right)^2+\frac{1}{2}=0$

다.

$2p^2-2p-1=0$ $\quad 2\left(p-\frac{1}{2}\right)^2-\frac{1}{2}-1=0$

$2\left(p-\frac{1}{2}\right)^2=\frac{3}{2}$ $\quad \left(p-\frac{1}{2}\right)^2=\frac{3}{4}$

$p-\frac{1}{2}=\frac{\sqrt{3}}{2}$ or $p-\frac{1}{2}=\frac{-\sqrt{3}}{2}$

$\therefore p=\frac{1+\sqrt{3}}{2}$ or $\frac{1-\sqrt{3}}{2}$

그런데 p는 혁신가 비율이므로 0≦p≦1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혁신가의 보수의 기댓값과 모방자의 보수의 기댓값이 일치할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사회는 변화할 수밖에 없다.

[평가]

이 답안은 사회 구성이 일정하게 유지될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한 잘 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는 각 유형의 기댓값을 구하는 방식이 틀렸기 때문이다.

[부족 답안 사례 2]

이 제시문에서 사회구성이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혁신가'와 '모방자'가 짝을 이루어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모방자'가 되는 '혁신가'의 비율과 '혁신가'가 되는 '모방자'의 비율이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를 살펴보면 혁신가가 혁신가와 짝이 이루어질 확률은 p x s로 ps가 된다. 같은 방식으로 혁신가가 무작위로 짝지어지는 경우는 p(1-s), 모방자가 모방자와 짝을 이루는 경우는(1-p)s, 모방자가 임의로 짝지어지는 경우는 (1-p)(1-s)이다.

여기서 혁신가가 무작위로 짝지어지는 경우에서는 이 혁신가들과 짝을 이룬 혁신가들 중의 일부는 그들의 기댓값이 모방자들의 기댓값보다 낮으므로 모방자가 될 것이다. 반면에 혁신가와 혁신가가 짝을 이룬 경우에서는 그들의 보수의 기댓값이 그대로 1이므로 계속 혁신가인 상태로 남는다.

모방자가 무작위로 짝지어지는 경우에서, 모방자들과 짝을 이룬 모방자들은 이들의

보수가 0이므로 일부는 혁신가가 된다. 반면에 모방자끼리의 짝에서는 모두의 보수가 0이므로 그 상태로 남는다.

따라서 혁신가가 무작위로 짝을 이루는 확률과 모방자가 무작위로 짝을 이루는 확률이 일치할 경우 혁신가에서 모방자가 되는 수와 모방자에서 혁신가가 되는 수가 같아져 사회구성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므로 p(1-s)=(1-p)(1-s)가 되고 p=1-p가 되어 $p=\frac{1}{2}$이 된다.

결국 모방자와 혁신가의 비율이 같을 경우 이 사회는 반복적으로 일정한 사회 구성을 유지하게 된다.

[평가]

이 답안에는 사회구성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두 유형의 보수의 기댓값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언명이 없다. 이 답안에서 말하고 있는 "모방자가 되는 혁신가의 비율과 혁신가가 되는 모방자의 비율"이 일치한다는 것은 두 유형의 보수의 기댓값이 동일하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또한 각 유형의 보수의 기댓값을 구하려는 시도는 있으나 그 방식이 정확하지 않다.

2009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모의시험(인문계)에서 논제Ⅰ은 요약을 통해 제시문을 정확하게 독해하고, 그 핵심을 추출하여 정리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으며, 논제Ⅱ는 제시문의 비교 및 자기생각의 논술을 통하여 다양한 관점들을 비교·분석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논제Ⅲ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진 자료들을 분석하여 나름의 논리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즉, 혁신가와 모방자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 사회 구성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포착하고, 이를 위한 조건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학적 기호들이 사용되고, 제시문의 표현 또한 수학문제와 유사한 점이 있었던 까닭인지 예전의 수리논술을 연상한다고 하지만 수리논술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입시에서는 수학적인 인상을 주는 표현들보다는 일상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문제의 난이도 역시 적절하게 조정할 것임을 이 기회에 밝힙니다.

결론적으로 2009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시험(인문계)의 기본틀은 모의시험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될 것이며, 논제Ⅲ에서는 역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묻게 될 것입니다. 다만, 논리적 분석과 활용이라는 점을 더 강조하여 통합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게 될 것입니다(2008학년도 문제 참조).

자 연 계